

스리랑카, 경제지원을 통한 내전 해결 도모

국별조사실

- 스리랑카 내전은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지배민족 싱할리족(불교)과 전인구의 17%인 소수민족 타밀족(힌두교)간의 분쟁으로 1983년 스리랑카로부터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조직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가 타밀족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음. 아시아에서 가장 긴 유혈분쟁으로 지난 20년 간 6만5천명의 사상자와 심각한 경제난을 유발시킨 본 내전은 지난 해 2월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

□ 평화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중

- 지난 12월 제3차 평화협상에서 LTTE측은 기존 정치 체제 참여로 노선을 변경하며 독립국가 건설 요구를 포기하고 정부군과 연방형태에 기초한 자치지역 설립원칙에 합의하였으며, 3월에 있을 제6차 평화협상에서는 재정위임 등의 권력분할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 본 휴전협정은 9.11테러 이후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거주 타밀족의 LTTE의 지원을 봉쇄함에 따라 LTTE측의 무력투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전 종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위크레메싱헤 총리와 오랜 내전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양측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루어졌음.

〈표〉 **스리랑카 내전일지**

일 자	내 용
1976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 결성
1983	정부군 13명 피살 계기로 싱할리족에 의한 타밀족 학살 사건 발생. 타밀족 분리 무력투쟁 운동 본격화
1985	정부·LTTE 최초 평화협상 실패
1991	LTTE가 연루된 테러로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 사망
1993	LTTE가 라나싱헤 프레마다사 대통령 암살
2000	LTTE 북부 요충지 장악으로 세력 확장
2002. 02	노르웨이 정부 중재하에 정부·LTTE간 휴전협정 서명
2002. 09	제1차 평화협상에서 LTTE가 분리독립에 대하여 포기의사 표명
2002. 10	제2차 평화협상에서 정치·경제·안전 부문 관련 소위원회 설치에 합의
2002. 12	제3차 평화협상에서 LTTE 지배지역에 연방형태의 자치지역 설치를 합의
2003. 01	제4차 평화협상에서 LTTE 등의 무장해제에 대한 협의
2003. 02	제5차 평화협상에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한 협의

자료 : 필자정리

□ **경제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도모**

- 본 협상 중재국인 노르웨이는 지금까지의 국제분쟁 해결은 강대국들을 통한 정치적 분쟁 해소가 우선시 되었으나, 팔레스타인 협상 실패를 계기로 우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당사자간의 자발적 분쟁해소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조를 일본에 요청함.
- 이에 따른 자금 지원국간의 구체적인 회의는 올 여름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일본은 내부적으로 5억 달러를 지원키로 방침을 정함.

□ 협상 완전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

- 본 평화협상에서 반군 무장해제와 정부군 철수 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싱할리족들 사이에서는 이번 협상이 반군들에게 오히려 전투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음.
- 최근 평화협상 감시단의 보고서는 반군측이 협상기간동안 10,000여 명의 전투요원을 추가 징집했다고 발표한바 있음.
- 이번 여름 동경에서 협의될 경제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다면 평화 협상의 급진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협상 결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